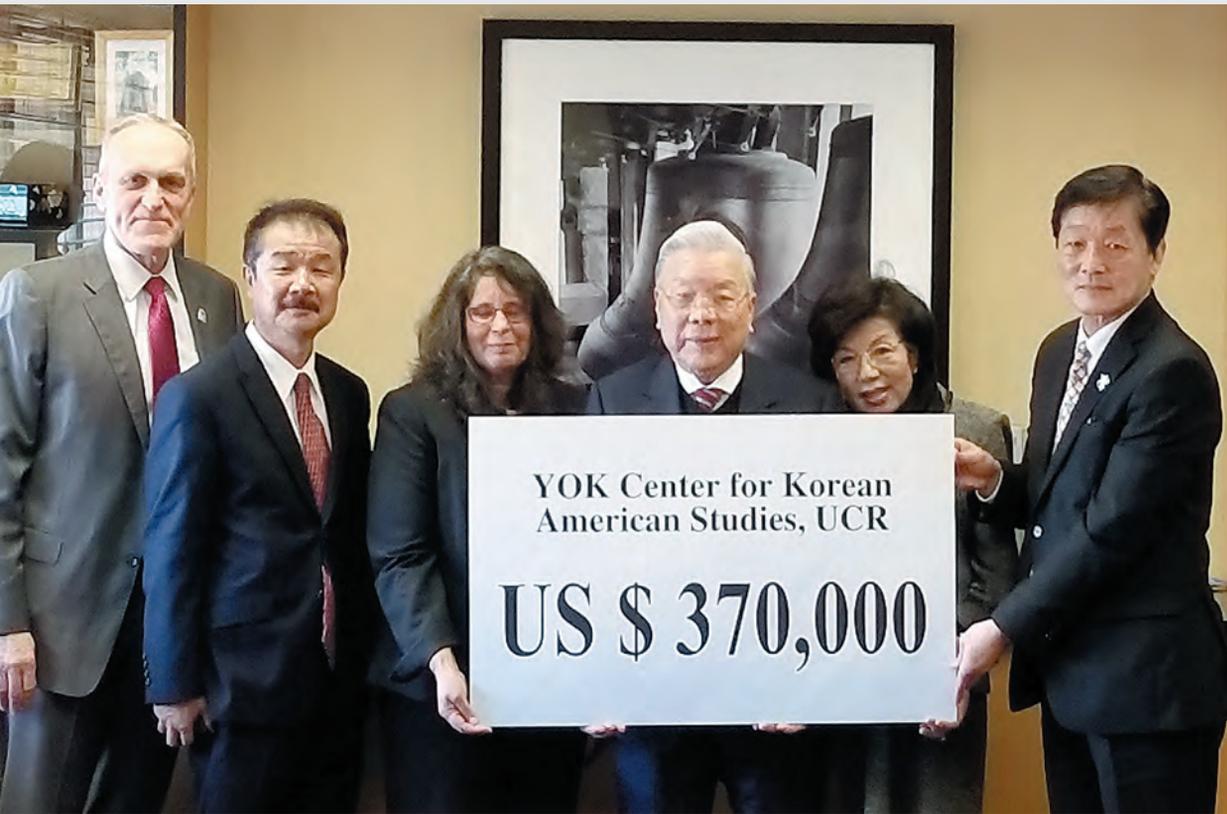


01
2018

재외동포의



특집: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한마음으로 응원”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존경하는 74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꿈과 바람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은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불확실성에 따른 수많은 위기의식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기에 앞으로 더욱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작년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을 기념하여 고려인 동포사회가 처한 여러 사안들을 내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한민족의 피는 흐르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동포들과 귀화동포, 그리고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재중동포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지난해 촛불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0번째인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역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뜻을 같이하여 한인 차세대 정체성을 강화하고,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듯이 ‘재외동포를 위해 존재하는 재단’이라는 신념으로, 정책에서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을 위한 역할을 논하기에 앞서 그들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지원과 사업을 펼쳐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후 귀환한 다국적 여성들과 자녀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현지 거주국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인권,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엄연한 재외동포임을 고려할 때, 관심을 두고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190여 개국 740만 재외동포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이며, 글로벌 시대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모두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여러분이 어렵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 기쁠 때 가장 먼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재외동포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재단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



- 02 신년사 존경하는 740만 재외동포 여러분!
- 04 특집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한마음으로 응원”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 06 화제 1 한중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전쟁 불가·비핵화·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도 포함... 정상 간 핫라인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 08 화제 2 “조선적 재일동포·해외한인 입양인 등 소외동포 지원 강화”
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 새 정부 정책방향 제시
- 10 기획 녹음 수출로 시작, 관광업으로 변창한 뉴질랜드 남섬 한인사회
중심도시 크라이스트처치, 한국 정부의 남극 연구 최전방 기지
- 12 글로벌 코리안 佛 디종 초중학교 한국어 수업 도입 노선주 한글학교 교장
‘비즈니스계 오스카상’ ‘스티비 어워드’ 대상 받은 재미동포 김태연 회장
8월 뉴욕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앞둔 재미과기협 서광순 차기 회장
- 14 지구촌 통신문 연방의회부터 주 의회 등... 美서 ‘평창올림픽 지지’
연방하원 의사록에 실려... 뉴저지 주 의회 결의안 채택
- 15 한민족 공감 푸른 눈의 태극전사들 평창 금메달 책임진다
아이스하키 등 불모지 종목에 귀화 선수 영입... 5개 종목 19명
- 16 동포소식 한인단체, 아프리카 학교·마을 10곳에 우물 파준다 외
- 19 동포 캘린더 재미동포, 이민 115주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 외
- 20 유공동포 ‘김영옥 연구소’에 37만 弗 쾌척...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회장
“김영옥과 같은 인물 되기 위한 젊은이 리더십 교육에 돈 써달라”
- 21 주목! 차세대 중국 상하이서 월 30~40벌씩 고급 한복 파는 조선족 3세 최설매
한복 테마카페 ‘설궁’ 운영... “고가로 현지인 공략 주효”
- 22 동포문학 스물 넷 꾸러미 선물
김신영(태국) 2017 동포문학상 초등부문 최우수상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명품 ‘이천쌀밥 정식’
차지고 윤기 자르르... 고슬고슬한 밥맛에 풍성한 반찬
- 26 OKF 뉴스 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외



표지 이야기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UCR 콘퍼런스룸에서 재미 사업가 홍명기 회장은 ‘김영옥 재일동포연구소’에 37만 달러를 기부했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한마음으로 응원” 한인회장이 전하는 새해 희망의 메시지

“한일 관계 개선위해 양국 가교에 앞장설 것”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조선통신사의 세계기록유산 등록이라는 아주 뜻 깊은 소식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등록 유산 실현을 위해 민단중앙본부는 일본측의 NPO법인 조선통신사 연고지연락 협의회의 일원으로 가입하여 전국의 지방본부가 지역사회의



국제행사로 조선통신사 퍼레이드의 재현 등 문화 이해를 호소하여 왔습니다. 우리 민단은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우호시대 개막에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한일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첫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상호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단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이 되고자 성금운동으로 1억 엔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국가와 국민 그리고 재외동포의 위신을 걸고 반드시 성공 시킵시다.

“글로벌경제사회서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보배”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21세기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정말 빛나는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 한해를 보람차고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2018년 역시 성공적인 한해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열리는

많은 행사들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하나 모여갈 때, 전 세계 한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 행사마다 정부당국에서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다 보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2018년에는 이러한 말들이 단순한 수사(修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한 훌륭한 정책들을 많이 입안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한중 갈등 해소 위해 민간 우호 증진”

이숙순 중국한국인회 회장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및 사드 사태로 말미암아 한·중 간의 갈등으로 재중 교민들과 기업들은 속앓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견디지 못한 상당수의 교민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생업의 현장을 뒤로 한 채 귀국길에 오르거나 훗날을 기약하면서 제3국으로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대한민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한·중 간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재중 교민사회도 더욱 화합하고 중국과의 민간 우호 증진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행사인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염원이자 바람입니다. 남북이 함께 참여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남북 화해는 물론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활짝 피워질 것입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세대 육성위해 응변·체육대회 개최”

남창규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지난해 우리 유럽한인총연합회 산하의 영국 한인회가 긴 분류를 청산하고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2월에 경제포럼을 시작으로 3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차세대 응변대회를, 6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인차세대 체육대회 및 차세대 만남의 장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초를 놔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계기로 각 국가에서는 차세대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다양하고 유익한 행사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독일, 등의 나라에서 시작된 활동이 유럽 전 국가로 확대 되어 우리가 바라는 하나의 유럽 차세대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유럽 한인사회를 으뜸으로 이끌어 가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구촌 과도기 동포사회 단합으로 극복”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지난해 미국을 필두로 시작된 지구 보호주의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거쳐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조 아래, 지구촌 전반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대대적인 변화의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사회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변화와 위함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만큼, 다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한 마음가짐과 필승의 전략으로 중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만큼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비로소, 우리에게 2018년이 또 한 번의 도약과 전진을 위한 전초기지의 한 해가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황금개의 해’ 정신을 본떠 우리 모두가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임한다면, 개개인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화해의 촉제되길”

이형만 중남미한인총연합회 회장

1988년은 대한민국에게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새로운 민주국가로 도약하던 해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향해 도약하는 해였으며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력의 한 해였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5천년의 역사상 ‘이만큼 경제적 부를 누려본 적이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발전했습니다.

2월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 전 세계에서 5개국만이 개최한 하계올림픽, 세계축구 월드컵대회, 세계육상대회, 동계 올림픽을 치러낸 역사적인 국가로 기록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남북한의 냉전과 대치는 줄어들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남북한이 하나되기 시작하는 2018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40만 동포들, 한 마음으로 모국발전 응원”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과 역경을 기회로 딛고 일어서는 저력이 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1세대들이 흘린 값진 땀을 토대로 이제는 2, 3세를 거쳐 세대를 더해 갈수록 세계 도처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비록 조국을 떠나 녹록치 않은 타국생활을 하고 있으나 우리 740만 재외동포들의 조국을 향한 응원과 따뜻한 염원은 늘 함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호주, 뉴질랜드, 피지, 파푸아 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아메리칸 사모아, 솔로몬, 마셜 공화국)회원 모두는 2018년 새해에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하여 지역 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고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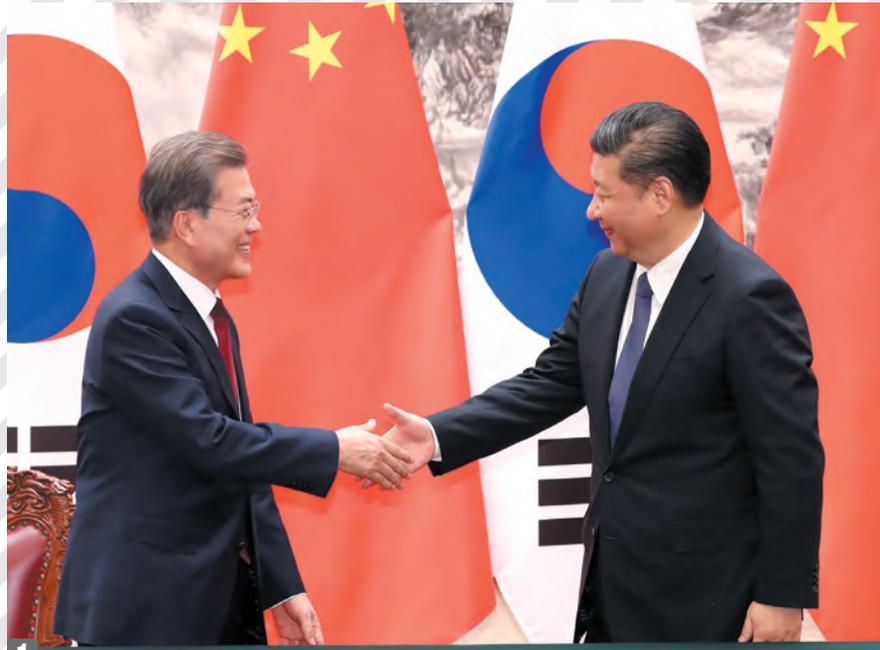
한중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전쟁 불가 · 비핵화 ·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도 포함... 정상 간 핫라인 구축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4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2시간 15분 동안의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양 정상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반도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두 정상은 양자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한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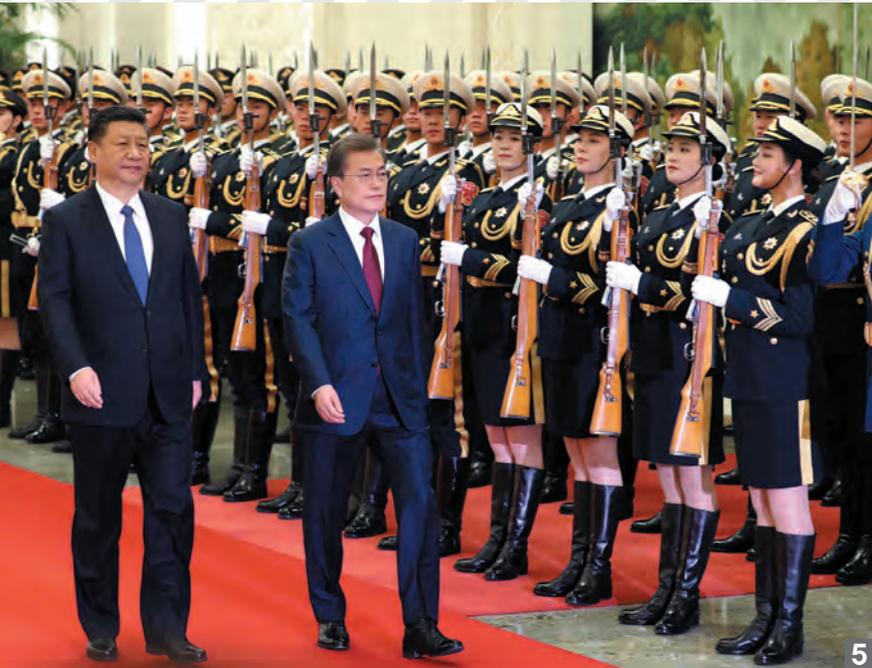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양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



1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최근 대북 대화 제안과 관련해 두 정상은 발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면서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약속,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중국 충칭시 대한민국 임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김구 선생이 사용하던 침대를 만져 보고 있다.
5.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달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0·31 합의로 "새로운 관계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31 사드 합의를 설명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핵은 중에도 큰 위협... 한중, 평화적 해결 공감"… 베이징대 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5일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과 대결이 아니다"라며 "북

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 및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장]**



“조선적 재일동포 · 해외한인 입양인 등 소외동포 지원 강화”

이 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 새 정부 정책방향 제시

“조선적 자유롭게 모국방문… 제도 개선”

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고려인 동포 · 해외 한인 입양인 ·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3만여 명의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정하고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해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일본은 자국 내 잔류 재일동포를 행정 편의상 식민지 시대의 한반도 명칭인 ‘조선’을 따와 ‘조선적’으로 분류했고, 이후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국적인 조선적으로 살고 있다.

조선적은 북한계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관련된 동포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 통일 조국의 국민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무국적으로 남은 동포 등 두 분류로 나뉘어 있음에도 보수 정권에서는 ‘조선적=총련계’로 보는 인식이 강해 입국을 제한해왔다.

조선적 동포들은 여권이 없기에 외교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여행증명서 발급률이 노무현 정부 때는 99~100%였으나 2016년에는 최저치인 34.6%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1.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2.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외도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총리 “재외동포, 각자 처지 맞게 도와드릴 숙제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하면 재외동포 숫자가 매우 많고, 또 매우 많은 나라에 망라돼 있다”며 “재외동포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외동포마다 해외에 나가 살게 된 사연이 모두 다르다”며 “일제 강점기에 어떤 분은 징용, 어떤 분은 징병돼 가셨고, 독립운동하러 나가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멀리 이민을 하신 분 등 제각각의 사연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방 이후에는 고아로 입양된 분도 있고, 국내에서 살기 어려워 나간 분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나간 분도 있다”며 “슬픈 사연도, 도전적인 사연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뭉뚱그려져 재외동포로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많은 동포를 가급적이면 망으로 연결하고 그 역량을 서로에게 좋게, 또 대한민국에도 좋게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정책을 펴왔지만 반성할 것은 없는가, 새롭게 개선할 것은 없는가, 충실할 것은 없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정책화하는 일을 우리가 맡고 있다”고 재외동포정책위의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견이 정책에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는 조병창 민화협 범유목협의회 상임의장, 재일민단 부단장 출신인 오영의 제18기 민주평통 서부협의회장, 박순옥 사할린한인회장,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조선족 출신 김부용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교수,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신일 전 한국교육학회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광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객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등 10명이 위촉됐다. [▶](#)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외교부는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줄이고, 심사 기간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국적 미취득 한인 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 수 2천200만 명 시대를 맞아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해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간 방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정부는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폴리 카보네이트)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2020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차세대 여권이 도입되면 한국 여권에 대한 국제 신

녹용 수출로 시작, 관광업으로 번창한 뉴질랜드 남섬 한인사회

중심도시 크라이스트처치, 한국 정부의 남극 연구 최전방 기지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 한반도 평화, 경제발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등은 새해를 맞는 740만 해외 동포의 공통적 바람일 것이다. 전 세계 한인사회 가운데 새해 일출을 가장 일찍 맞이하는 곳의 하나가 뉴질랜드이다. 한국 표준시간보다 3시간 빠르고 10월부터 3월까지 적용되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국과 4시간 차이가 난다.

뉴질랜드 남섬은 뉴질랜드를 이루는 두 섬 중 하나로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섬(면적 15만 737km²)이며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다. 세계적인 트래킹 코스 '밀포드' 트랙이 이곳에 있다. 뉴질랜드 남섬에 발을 디딘 최초의 한인인 1972년부터 녹용 사업을 한 김경준 씨(작고)로 알려졌다. 당시까지 수출용 고기 용도 이외에 달리 활용가치가 없던 녹용을 가공해 수출하기 시작한 공로로 뉴질랜드 사슴농민협회는 1994년 김 씨에게 녹용 개척자 상을 수여했다. 그 후 이성방, 박경식, 김용관, 이연수 씨 등이 차례로 입국해 녹용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부터 크라이스트처치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녹용 사업에 진출한 교민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여럿 있었으나 자기

들이 쓸모가 없어서 버리던 사슴뿔을 헐값에 매입, 가공해서 비싸게 수출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아채린 농장주들이 제값을 받겠다고 나서고 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가 가해지면서 많은 교민 업체가 2000년대 초·중반 문을 닫았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이준현 씨가 태권도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1990년 이전까지 남섬 전역에는 50여 가구의 소수 한국인만 정착하고 있었으며 티마루를 중심으로 원양어업 업체들이 자리 잡고 선원들이 부정기적으로 들르는 정도였다. 이후 1980년대 말 투자이민 개방에 이어 1991년부터 이른바 점수제 이민이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새로운 기술사업 이민정책 실시를 계기로 이민이 본격화하면서 비로소 남섬에도 한인사회가 커지게 됐으며 소규모의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도 1991년 출범했다.

당시 고국을 떠난 뉴질랜드 이민자 대부분이 북섬의 오클랜드에 정착했고 그중 일부가 남섬 크라이스트처치를 새로운 삶의 터로 정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이곳 시내에도 리카턴 지역을 중심으로 식당과 기념품점 등 한인업소가 들어섰다. 이 시기에 한인교회도 생겨나 한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1.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가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개최한 공연 후 찍은 단체 사진. 뉴질랜드 남섬에는 20여 명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으며 고령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2. 한국의 날 행사장에서 포브스 테일러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대표와 함께 포즈를 취한 이정은 한인회장. 이민 1.5세대인 이 회장은 30대 젊은 나이답게 역동적으로 한인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3. 뉴질랜드 거주 한인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새해 첫날 해돋이 광경을 먼저 볼 수 있다. 한국과의 시차가 3시간, 서머타임 적용 기간에는 4시간이다. 사진은 남섬 와나카의 일출 모습.

4. 크라이스트처치 리틀톤항에 정박 중인 쇠빙선 아라온호. 크라이스트처치는 한국 정부의 남극 연구 프로그램 최전방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5.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의 가장 큰 사업으로는 매년 12월 초에 개최하는 '한인의 날' 행사가 있다. 50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발로 뛰며 노력한 끝에 시 정부가 인정하는 현지 4대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시작했고 동포신문과 방송, 한국학교가 잇따라 문을 열었다.

1993년부터 뉴질랜드에 주 3회 취항한 대한항공 직항편 중 주 1편이 이듬해 7월부터 크라이스트처치까지 연장 운항에 들어갔고 한국 내 세계화 바람과 해외여행 붐에 편승해 뉴질랜드 남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1999년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장기사업비자 제도까지 도입해 또 한 차례 이민 붐이 불어 남섬 한인사회가 크라이스트처치뿐만 아니라 더니든 등 여타 지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여학연수 및 조기 유학 붐과 맞물려 유학생과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 2000년대 초 중반 무렵에는 남섬 전역에 크라이스트처치 4천~5천여명 교민을 포함해 다른 지역 교민과 유학생, 가족, 워킹 홀리데이 젊은이들까지 합치면 1만여 명 가까운 한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대지진으로 교민들이 오클랜드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고 유학생들이 떠난 빈자리도 새로 채워지지 않으면서 현재는 거주 한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크라이스트처치에는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분원이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연구용 쇠빙선 '아라온'호가 매년 10월경 이곳에서 보급물자와 연구진을 남극 기지로 보내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사회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가고 있

다. 이정은 회장은 1980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가족과 함께 이민 온 1.5세대이다. 이 회장에게 젊은 나이에 한인회장직을 맡게 된 배경을 물어봤다. “한인회 일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1.5세대 교민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 역시 솔직히 교민 사회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재향교민회에서 개최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인 저 자신은 오히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던 모국 한국에 대해 이분들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발전한 데 대해 저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군요.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과 이곳까지 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이후 한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가 됐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사회의 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이민 1.5세대로 살아오며 관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일꾼이 될 세대인 젊은층과 자녀들이 더 좋은 기회를 쫓아 떠나는 경우가 많고, 이곳에 정착하더라도 언어나 문화면에서 이미 현지사회에 잘 적응한 만큼 한인사회와의 교류 없이 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정착하고 한인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이민 1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

“한글학교는 한국 문화 발신지, 대학 한국학과 개설에 노력”

佛 디종 초중학교 한국어 수업 도입 **노선주** 한글학교 교장



프랑스 디종교육청은 2016년부터 초중고의 제3외국어에 한국어를 포함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가 한국어를 채택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가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되도록 주도한 이는 노선주(49) 디종한글학교 교장이다.

노선주 교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추진한 일”이라고 밝혔다.

2006년에 개교한 디종한글학교는 교사 6명에 학생이 80여 명이다. 디종시 부설건물인 디종시협회관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문을 여는 주말학교다. 디종과 주

변 지역에 사는 한인 입양인은 400여 명. 양부모와 배우자·자녀 등 가족까지 합하면 1천여 명에 달한다. 이들이 유일하게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한글학교이다 보니 입양인들은 한글학교 후원회도 만들어 돕고 있다.

디종한인회 회장이기도 한 노 교장은 “한인·입양인·다문화 자녀들이 함께 배우다 보니 한국어 못지않게 한국사와 한국문화도 가르치고 세계시민교육도 병행한다”고 소개했다.

이 학교는 지역사회에 한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7년째 인근 학교를 빌려 ‘한국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한복·전통예절·한식 체험 등도 펼치고 학생들의 K팝 무대도 열린다.

노 교장은 “교사들은 재외동포재단의 도움으로 한국 교육기관의 사이버연수·초청연수 등을 받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인증한 강의 자격증은 없다. 그런데도 바로 방과 후 수업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은 파격적인 일”이라며 “초중고에 한국어 수업이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디종지역 대학에 한국학과가 개설될 때까지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업은 혁신·사회는 사랑,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 하겠다”

‘비즈니스계 오스카상’ ‘스티비 어워드’ 대상 받은 재미동포 **김태연** 회장

재미동포 여성기업가인 김태연(71) 라이트하우스 월드와이드 솔루션(LWS) 회장이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s) 대상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뉴욕에서 ‘국제비즈니스대상’(IBA) 주최로 열린 ‘스티비 어워드’ 시상식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쏟은 것이 수상 배경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업은 혁신으로, 사회는 사랑으로’라는 마음

가짐으로 기업경영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IBA가 2002년 제정해 매년 시상하는 이 상은 세계 여성기업인, 대기업 임원, 국가 공무원, 단체나 협회 종사자 등 여성기업가와 여성이 운영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유일의 비즈니스 국제상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비즈니스계 오스카상’이라 평했다.

올해는 1만5천여 명의 후보가 올라 이 가운데 최종 10명이

뽕혀 각 부문 수상을 했으며, 김 회장은 대상 격인 '평생업적상'을 아시아 여성으로는 처음 받았다.

그는 50년 넘게 미국에 거주하면서 온갖 역경을 딛고 글로벌 기업인으로 성공한 업적을 인정받았고, 최근 발표한 라이트 하우스의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인 'APEX'의 기술 혁신에 산업계가 주목한 것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2년 설립된 라이트하우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벤처신화를 일궈냈다.

세계 120개국에 세일즈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환경 첨단 업체로, 반도체 개발로 출발해 미세먼지 측정, 환경오염 등 세계 최초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1968년 미국에 건너가 '캔 두'(can do) 정신을 내세우며 라이트하우스를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100대 유망기업', 지역 신문이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의 회사로 만들었다. 소외 여성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봉사와 공익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8월 뉴욕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 앞둔 재미과기協 **서광순** 차기 회장

“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가정에서부터 과학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차기 회장인 서광순(미국명 스티븐 서·52) 미국 뉴저지 주 헤켄섹 대학병원 암센터 디렉터는 지난해 12월 4일 “한국이 노벨상에 목말라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서 디렉터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조부모, 부모가 전혀 과학기술을 모르면 자녀도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 내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받는 이유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3세대가 어우러져 과학기술 교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과학기술 관련 학술행사에도 함께 손을 잡고 찾아갈 것을 권했다. 많은 학술 행사에 참여해 여러 분야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 디렉터가 노벨상을 화두로 꺼낸 것은 KSEA가 연례행사로 치르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18)’를 홍보하기 위함이다. KSEA는 1971년 출범한 미국 내 한인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서 디렉터는 지난해 4월 회원 투표를 거

쳐 47대 회장에 당선됐고, 오는 7월 1일 취임한다. 그는 KSEA에서 뉴욕메트로 지부장, 프로젝트 디렉터, 부회장을 지냈다. 그는 “제20회 UKC는 8월 1~4일 뉴욕 플러싱에 있는 세인트존스대 콘퍼런스 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며 “자녀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KSEA는 이 대회를 포함해 1년간 220개 이벤트를 치르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리 회장을 뽑는다. 서울 출신인 그는 11살 때 미국 텍사스에 이민했다. 텍사스 주립대에서 분자세포 생물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창]**

www.korean.net 13

연방의회부터 주 의회 등... 美서 '평창올림픽 지지'

연방하원 의사록에 실려... 뉴저지 주 의회 결의안 채택



빌 파스크렐 미 연방 하원의원. 빌 파스크렐 미 연방 하원의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지지' 의사록.

다음 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곳곳에서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 분위기로 전환하길 바라는 미국 내 한인 동포들의 바람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의 중진인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의원은 1월 8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스크렐 의원은 “미국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북핵 위기 등 국제 분쟁에 대항하고 평화를 고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국제사회에서 그 헌신과 공로가 높이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입장은 연방의회 의사록

에도 실렸다.

파스크렐 의원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11선 의원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힌다. 동해 표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미국 내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뒷받침해왔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미국 연방의원이 평창올림픽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뉴저지 주 의회도 1월 9일 상·하원 합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상·하원 합동 결의안에는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유지’ 정신에 동참하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업적에도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은 로레타 와인버거 주 상원의원, 골든 존슨 및 발레리 허틀 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뉴저지 주 문화예술단체인 가든스테이트오페라단 주성배 단장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행정집정관) 위원회도 1월 10일 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앞두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채택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김완중 총영사에게 전달했다. 슈퍼바이저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공동시장 격으로 카운티 행정을 감독하는 자리다.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결의안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동북아의 협력과 번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촉매이자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는 캘리포니아 주 58개 카운티 중 인구수(300만 명)로 3위이며 미국 전체에서도 6번째로 인구가 많은 카운티다. LA 총영사관은 “최대한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이 지역 내 한인들의 높은 위상이 작용해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

이준서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푸른 눈의 태극전사들 평창 금메달 책임진다

아이스하키 등 불모지 종목에 귀화 선수 영입... 5개 종목 19명



아이스댄스 민유라-알렉산더 게말린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대표선발 2차전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130여 명 중 귀화 선수가 19명에 이른다. 한국 역대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다. 아이스하키(남자 7명, 여자 4명)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바이애슬론(4명), 스키(2명), 피겨(1명), 루지(1명)가 뒤를 잇는다. 국적별로는 캐나다(8명), 미국(5명), 러시아(4명), 노르웨이(1명), 독일(1명) 순이다. 4년 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여자 쇼트트랙의 공상정이 유일한 귀화 화교 선수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한국의 역대 동계올림픽 메달은 총 54개(금 26, 은 17, 동 11)인데, 모두 빙상 종목(스피드, 피겨,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인방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서 틀러리가 되지 않으려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그 해답은 귀화 선수였다. 올림픽 엔트리 25명 중 7명을 귀화 선수로 채운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는 그 덕을 톡톡히 봤다. ‘동네북’이었던 한국은 2014년 7월 백지선 감독의 부임과 골리(골키퍼) 맷 달튼, 포워드 마이클 스워드 등 귀화 선수의 가세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난해 일본을 3-0으로 꺾고 34년간 이어진 ‘무승의 한’을 푼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23명의 올림픽 엔트리 가운데 4명을 귀화 선수로 채웠다. 이들 4명(박은정, 임진경, 박윤정, 랜디 희수 그리핀)은 모두 한국계다. 귀화 선수를 통해 전력의 빈틈을 채운 한국은 올해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4부리그)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바이애슬론은 남자 선수 2명(티모페이 랍신, 알렉산드르 스타로두벡츠)과 여자 선

수 2명(에카테리나 아바쿠모바, 안나 프롤리나)이 한국 국적을 획득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바이애슬론에 걸린 금메달은 총 11개다. 푸른 눈의 태극전사들의 어깨에 바이애슬론 올림픽 첫 메달이 걸려 있다.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마그너스, 미국 입양아 출신인 이미현은 한국 스키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둘은 이중국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사례다. 김마그너스는 현실적인 메달 목표를 평창이 아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잡았다. 이미현은 메달권 진입을 꿈꾼다.

아이스댄스의 알렉산더 게말린은 민유라와 한 조를 이뤄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무대를 빛냈다. 게말린-민유라 조는 지난해 9월 말 독일에서 열린 네벨혼 트로피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하며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루지에서는 독일 출신의 여자 선수인 아일렌 프리슈가 평창올림픽 입상을 위해 귀화했다. 프리슈는 세계 루지 최강국인 독일에서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자란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자국 대표팀 선발전에서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대표팀에 귀화한 외국인 선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들은 한국에서 6~7년을 뒀 선수들이다. 내 눈에 그들 모두는 한국인이다. 물론 피부색이나 눈 색깔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들은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말할 줄 알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는다. 내 눈에는, 그리고 그들의 눈에도 그들 모두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인이다.” **▶**

한인단체, 아프리카 학교·마을 10곳에 우물 파준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사진)와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회장 김점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프리카협의회(회장 임도재)는 탄자니아 초등학교 2곳을 시작으로 가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에 10개의 우물을 파주고 정수 시설을 설치하는 '식수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해 12월 11일 밝혔다. 임도재 회장은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의 학교나 시골 마을은 우물이 없어 흙물을 마시고, 화장실도 없어 공중위생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인들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팔을 걷어붙인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나라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우물 한정을 파주는데 4천 달러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앞으로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프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탄자니아, 가나,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에 10개의 우물을 파주고 정수 시설을 설치해줄기로 했다고 밝혔다.

젝트를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시범 사업으로 우선 올해 1월 까지 탄자니아한인회(회장 이해명) 주관으로 탄자니아 케레게와 마핑가 초등학교에 우물을 파주고 정수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 학생들은 매일 2개 학급이 돌아가며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서 흙물을 받아와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인 단체들이 이 프로젝트에 나선 것은 케레게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미루 자발리 학생의 편지를 받고서다. 이 학생은 탄자니아한인회에 보낸 편지에서 "물 길으러 가는 걱정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물 길기가 너무 힘들어 종일 잠만 자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도 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아르헨티나 수도 랜드마크 빌딩, 한인들이 세웠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한인들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가에 랜드마크가 될만한 빌딩을 세워 화제가 되고 있다. 현지에 이민한 지 30년 이상 된 김용남(52), 최상학(49), 김정한·최승욱(48) 씨 등 1.5세 4명은 원단 수입·판매와 의류 사업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의회 건물이 있는 콩그레소 지역에 지상 26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그랜드 뷰'(대표 김용남)를 지어 지난해 11월 23일 완공식을 열었다. 공동주주인 김정한 씨는 "같은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던 분들과 건물을 짓기로 의기투합한 지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아르헨티나의 첫 주상복합 건물로, 은행 융자 없이 4천만 달러를 들여 지었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동포 한인 4명이 원단 수입·판매와 의류 사업 등을 통해 번 돈으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중심가에 지상 26층, 지하 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지난해 11월 23일 완공식을 열었다.

총 건평 3만3천㎡의 이 건물은 134개 객실을 구비한 '아메리안 콩그레소 호텔', 아파트 98채, 상가 6개, 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연회장 8개, 수영장과 사우나,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상가 임대와 아파트 분양은 이미 끝나 입주했고, 호텔은 지난달 말 정식 영업에 들어갔다. 김 씨는 "빌딩 높이나 규모로 볼 때 아르헨티나 수도의 랜드마크로 꼽을 수 있다"며 "한인들도 이민 52년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이중환율제도, 인허가 과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4명이 뚝뚝 뚫어 완공할 수 있었던 만큼 이 빌딩이 한인 후손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시카고 시의회, 평창올림픽 지지결의안 채택... 美 대도시로는 처음

미국 시카고 시의회가 대도시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성원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카고 시의회와 램 이매뉴얼 시장은 지난달 13일 시청 내 의회 회의장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의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적이고 평화적인 대회가 되길 염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역협의회(이하 시카고 평통)의 건의로 한 인사회와 인연이 깊은 데보라 멜(49·민주) 시의원이 발의,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그 외 한인 상권 밀집지역을 지역 구로 하는 마거릿 로리노 의원과 시카고 정계 유력 인사 에드 버크 의원 등이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화이팅” 결의안을 발의한 데보라 멜 의원(가운데)과 시카고 한인사회 인사들.

이날 회의에는 시카고 평통 위원들과 시카고 한인회 임원 등이 참석, 결의안 채택 과정을 지켜봤다. 앤드리아 발렌시아 서기관은 결의문 전문을 낭독한 뒤 한인 참관인들을 소개하고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결의문에는 이매뉴얼 시장과 발렌시아 서기관이 서명했으며, 시의회는 사본을 시카고 평통 측에 전달했다. 시카고 평통 정종하(56) 회장은 “미국 대도시 의회가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국가들이 ‘북한발 안보 위협’을 이유로 평창올림픽 참가에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누적 응시자 200만 명 돌파... ‘한류의 힘’

올해로 도입 20주년을 맞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누적 응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지난해 11월 18~19일 치러진 제55회 시험을 포함해 1회부터 지금까지 TOPIK 응시자가 모두 212만16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TOPIK 응시자는 1997년 첫째 2천692명에 불과했다. 2000년대 한류 열풍을 타고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2011년과 2015년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적도 있으나 2016년 25만141명에 이어 2017년 29만638명을 기록했다. 20년 만에 무려 108배나 늘어난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유학·취업 등 실용 목적의 응시자 말고도 K팝이나 한류 드라마 등 한국



2014년 7월 서울 경희대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응시자들이 답안지에 수험번호 등을 표기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TOPIK의 인기가 높다 보니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국립국제교육원 컴퓨터 서버가 다운돼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고, 네팔이나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이 대거 TOPIK 시험을 보러 가 온 마을이 텅텅 비는 일도 있다고 한다.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사용 능력을 평가하고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한 시험이다. 2015년부터는 연간 6회씩 치르고 있다. 시험을 시행하는 나라도 1997년 한국·일본·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73개국으로 늘어났다

加 온타리오 주, 매년 10월 ‘한인의 달’ 지정해 문화유산 알린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올해부터 10월 한 달 동안 정치·경제·문화 발전에 한인들이 기여한 점을 널리 알리고, 전통 문화를 소개하기로 했다. 온타리오 주의회는 조성준(사진) 보수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한인 문화유산의 달’ 제정 법안(Bill 123)에 대한 3차 독회를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 총리가 법안에 서명하면 올해부터 10월은 주 정부가 인정한 ‘한인의 달’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주 정부 지원금을 받아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회는 한인 동포 조성준 보수당 의원이 발의한 ‘한인 문화유산의 달’ 제정 법안을 지난해 12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 의원은 지난달 14일 “한국과 캐나다 수교 54년 만에 있는 한인사회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타민족들이 부러워하

마해 유색인종으로는 처음으로 당선하는 쾌거를 이룬 뒤 전세계 한인 이민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8선을 달성했다.

는 ‘한인 문화유산의 달’ 제정은 한인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9월 캐나다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퀸스파크(온타리오 주 의사당)에 입성한 조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반세기 넘게 온타리오 주 발전에 공헌한 한인사회를 주류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동포 2~3세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주 정부는 매년 10월 3일을 ‘한인의 날’로 지정했고, 주의회는 이날 퀸스파크에 태극기를 게양해 기념하고 있다. 조 의원은 1991년 토론토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

멕시코 메리다市에 ‘대한민국로’… 한인들 독립운동 거점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독립운동 후원 거점이었던 멕시코 남동부 최대 도시인 메리다시에 ‘대한민국로(路)’가 생겼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와 마우리시오 빌라 멕시코 유카탄 주 메리다 시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로(Avenida Republica de Corea) 표지판과 내년에 건설될 대한민국로 기념탑의 동판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지난해 8월 양측이 메리다 시 신흥 중심지인 알타브리사 지역 7번가를 대한민국로로 명명키로 합의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열렸다.



전비호 주멕시코 한국대사(왼쪽)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로 표지판 밑에서 마우리시오 빌라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 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전 대사는 112년 전 중남미 지역 최초로 한국인들이 이민을 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유서 깊은 도시인 메리다시에 대한민국로가 공식적으로 탄생

금을 송금했고, 광복 후인 1946년에는 국가재건의연금을 보내기도 했다. **창**

한 것을 기리고자 대한민국로 기념탑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고 기념탑 동판을 공개했다. 메리다시는 멕시코 동남부 유카탄 반도에 있는 유카탄 주의 주도이자 멕시코 남동부 최대도시로, 한인 이민자들의 애환과 독립열망이 깊이 서려 있는 곳이다. 메리다시와 주변 지역에 3~5세대 한인 후손 7천여 명이 거주 중이다. 1905년 노동이민으로 형성된 메리다 한인사회는 1909년 대한민국 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창립한 후 사관을 양성하는 기관인 송무학교를 세웠다. 진성학교와 해동학교도 설립해 민족교육을 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에 감명받아 독립자

재미동포, 이민 115주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

미주한인재단은 올해 이민 115주년을 맞아 1월 6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LA 한인 회, 뉴욕한인회 등은 13일 한인회관 등에서 이민 115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한인의 미주 이민은 1903년 1월 13일 미국 땅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처음 도착하면서 시작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2005년 12월 만장일치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공식 지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 2016년 LA시의회에서 열린 미주한인의날 선포 행사 장면)



3월 폴란드서

유럽 한인 차세대 우리말 경연 응변대회 예정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남창규 · 사진)는 3월 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7회 유럽한인차세대응변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6~11세), 중고등부(12~17세), 다문화가정부(6~17세)로 나눠 진행한다. 각 국가에서 부문별 1명씩 참가할 수 있으며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와 개최국 폴란드에서는 2명까지 가능하다. 초등부는 3년, 중고등부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 해당 국가 한인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참가할 수 있다.



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 동포에 '우리 달력' 1천200부 선물

지구촌동포연대(KIN)는 러시아 사할린 거주 한인들을 위한 '우리 달력' 1천 200부를 제작해 현지 배포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세상에 하나 뿐인 달력 2018'이라는 이름의 이 달력은 한민족 고유의 풍속을 지켜온 사할린 한인들을 위해 러시아 달력에 한국의 명절, 농사, 손 없는 날 등 음식 낱자를 표기한 것이다. 배덕호 KIN 대표는 "사할린한인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프, 홀스크, 돌린스크 등 한인이 사는 주요 도시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 언론사 2018년 지원사업 공모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간 · 주간신문, 인터넷매체, 잡지 등을 1년 이상 정기 발행하는 재외동포 언론사를 대상으로 2018년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재단은 이들 언론사가 10월 5일까지 주제에 맞는 기획보도나 광고 게재를 완료하고, 같은 달 19일까지 결과보고서와 보도물을 우편(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2층 국제교류팀)이나 이메일(kpipro@naver.com)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회사당 6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중국 선양서 개최

민족시인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2017년 마지막 기념행사가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동북3성 연합 교민문화단체 동주학당은 선양 조선족 제6중학교 강당에서 교민, 조선족동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동주 100주년 시낭송 음악회'를 열었다. 행사를 마련한 동주학당의 박신현 이사장(다렌 한인회장)은 "단순한 시낭송 행사가 아니라 윤동주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각자 삶의 교훈을 공감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종학당재단, 한국어 '유형별 학습앱' 선보인다

해외에서 한국어 ·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한국어를 유형별로 학습할 수 있는 '세종한국어 학습앱'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선보일 계획이라고 1월 1일 밝혔다. 기존의 어휘학습 외에 문법, 회화, 발음 등을 추가하며 PC와 스마트폰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학습 앱은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서도 한 번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연구소’에 37만 弗 쾌척… ‘재미동포 기부왕’ 홍명기 회장

재미동포 대표 한상인 홍명기(84) 듀라코트 회장은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학(UCR) 내의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 37만 달러(약 3억9천 300만 원)를 기부했다.

홍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 오후 UCR 콘퍼런스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 윌콕스 UCR 총장, 장태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 밀라그로스 페나 UCR 인문대학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로써 연구소 설립비용의 동포사회 총당금 100만 달러 목표는 조만간 달성될 전망이다.

그는 전달식에서 “LA에는 미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김영옥과 같은 인물이 되라는 뜻에서 개명한 ‘김영옥 중학교’가 있다”며 “기금의 이자는 이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 젊은이들의 리더십 교육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은 전 세계 한상들이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해 세운 장학재단인 ‘글로벌한상드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는 LA태생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 공로로 양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영웅 고(故) 김영옥 대령의 이름을 따 2010년 문을 열었다.

당시 장태한 UCR 교수와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을 발간한 재미동포 언론인 출신 한우성 이사장이 설립을 주도했다. 설립 비용 700만 달러 가운데 재외동포재단과 UCR이 각각 300만 달러를 내냈으며, 나머지 100만 달러는 동포사회가 출연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재미동포 사회 전반에 관한 데이터 축적과 타인종



1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UCR 콘퍼런스룸에서 재미 사업가 홍명기 회장은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에 37만 달러를 기부했다. 사진 좌측부터 김 윌콕스 UCR총장, 장태한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소장, 밀라그로스 페나 UCR 인문대학장,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과 부인 로리 홍 여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커뮤니티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한인 사회의 발전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홍 회장은 “유능한 인재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훗날 더 많은 도움과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며 “한인사회가 남들을 돌아보며 서로 나누는 문화가 성숙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1954년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정착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군 대표적인 한상(韓商)이다. UCLA를 졸업하고 26년 동안 페인트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받아 사표를 던지고 51살의 늦은 나이에 창업했다.

산업·건축용 특수도료를 개발하고 이를 생산하는 듀라코트를 세워 30년 만에 연 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해 세계 특수페인트 시장 ‘탑 5’에 올랐다. 2016년에는 글로벌 코팅제 기업 ‘액솔타’에 듀라코트를 수십억 달러에 매각했다.

그는 2001년 사재 1천만 달러를 털어 ‘밝은미래재단’을 설립한 뒤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쳐왔다.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한국학원을 살려낸 것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항일독립운동의 성지로 꼽히는 LA 대한인국민회관 복원, ‘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 설립 등 동포사회의 숙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주사회와 모국에 장학사업 등으로 지금까지 1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한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 2011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장]**

“
김영옥과 같은
인물 되기 위한 젊은이
리더십 교육에 돈 써달라”
”

중국 상하이서 월 30~40벌씩 고급 한복 파는 조선족 3세 최설매

“제품보다 한국문화를 전한다는 자부심으로 상하이에 한복점을 냈습니다. 앞으로 중국 주요 도시와 동남아까지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의 훙첸루 거리에 가면 한복을 입고 카페에서 사진을 찍는 현지인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전통한복·생활한복·퓨전한복 등 100여 벌의 옷을 취향대로 골라 입을 수 있는 한복 테마카페인 ‘설궁’에서는 50만~100만 원대의 한복이 매달 30~40벌씩 팔려 나간다.

지난해 초 설궁을 오픈해 상하이 한류 팬들의 명소로 키운 이는 조선족 동포 3세인 최설매(26) 씨다. 설궁이 성공한 비결에 대해 “한국에 가지 않아도 제대로 된 한복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고급 전략을 구사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지린성 연변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2014년 상하이로 이주해 외국계 홈쇼핑 회사와 금융회사에 근무하다가 2016년 퇴사했다. 이후 한복점을 창업하려고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복시장을 조사하고 한복 만드는 것을 배웠다. 어려서부터 한복을 좋아했다는 그는 대학 시절 3년간 연변TV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항상 한복을 입었다.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 복식과 예절 등에도 관심이 많았고 좋아하는 것을 사업으로 연결해보려고 중국 유행의 중심도시인 상하이에서 한복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대우도 좋은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는 한중 관계도 경색됐는데 한복사업을 한다니까 모두 만류했어요. 그렇지만 아름답고 예쁜 것에 끌리는 것은 만국 공통인 데다 이런 시기일수록 문화를 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밀어붙였습니다.” 설궁의 고객은 한인과 현지인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찾은



중국 상하이에 한복체험·판매점인 설궁을 운영하는 최설매 대표. 그는 분기마다 현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교실’을 열고 있다.

“
한복 테마카페
‘설궁’ 운영...
“고가로 현지인 공략 주효”
”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하다. 맞춤 한복 제작을 위해 한복 재단사도 고용했고 원단은 전부 한국에서 수입한다. 매장에는 중국 전통 옷인 치파오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고객에게 한복뿐만 아니라 치파오의 매력도 함께 설명합니다. 문화는 쌍방향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것만 홍보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도록 소개합니다.”

한복이 좋아 웨딩드레스로도 주문하는 커플이 생겨나면서 자신감이 생긴 그는 2호점을 올해 초 시내 중심가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가족제품, 향초 등 수공예품과 한복의 협업 형태도 구상하고 있다. “여러 도시에서 창업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어 요즘 신바람이 난다”고 말했다. 설궁은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분기별로 한복체험 교실도 연다. “단순히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예절과 우아한 몸가짐 등 문화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복의 최신 유행도 파악하고 복식기술도 배우려고 매달 한국을 방문한다는 그는 “중국과 동남아에 한복 판매장을 100호 점까지 내는 게 목표”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한정]

스물 넷 꾸러미 선물

김신영(태국) 2017 동포문학상 초등부문 최우수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입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야옹' 하며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고급스럽고 깜찍하게 느껴져요. 제가 사는 태국 치앙마이에는 고양이들이 아주 많아요. 불교를 믿는 태국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인지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고양이를 매우 싫어하시는 제 어머니 때문에 고양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길거리에서 자주 고양이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집만 나가면 고양이들이 길바닥에 엎어져서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멀치나 북어를 갖다 주곤 했죠.

그렇게 길고양이를 돌보기만 하던 저에게도 고양이를 키울 기회가 찾아왔어요. 제가 살던 동네의 길고양이 중 유일하게 사람들이 만져도 도망가지 않는 고양이는 사고로 눈이 한쪽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양이를 '애꾸' 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꾸가 제 방 베란다에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를 낳은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틈만 나면 고양이들을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얼떨결에 고양이 여섯 마리가 새 가족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구머니나! 몇 달 후에 애꾸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것도 다섯 마리나 낳았어요. 엄마 아빠는 기겁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서둘러 저의 아기 고양이들을 하나둘씩 분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애꾸가 처음에 낳았던 새끼 고양이 중에 두 마리

가 거의 한꺼번에 새끼들을 낳았어요. 거기에다가 애꾸마저도 또 새끼 네 마리를 낳았답니다. 그때 태어난 고양이들만 무려 열한 마리였답니다.

애꾸가 처음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일 년 만에 태어난 고양이들을 모두 세어 보니 스물네 마리나 되었답니다. 전에 살던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그렇게 저는 고양이 스물네 마리와 함께 매일 매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제 부모님께서도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나의 소중한 친구들을 다른 집으로 보내려 하셨어요. 그도 그렇지, 고양이 사료 값은 우리 가족이 먹는 쌀값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요. 고양이 목욕시키기, 놀아주기, 대변 치우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 늘어나는 고양이들을 막기 위해 다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 해도 돈이 자그마치 2만4천 바(약 80만 원)이나 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웠어요. 우리 가족은 긴 회의 끝에 우리는 가장 순하고 예쁜 회색 고양이 몽몽이만 빼고 다른 고양이들은 다 나눠주기로 했어요.

비록 몽몽이 외의 다른 고양이들은 다 헤어졌지만, 저에게 일 년 동안 애꾸로부터 시작된 고양이와의 추억은 정말 특별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온 집안에 가득 했으니까요. 뽀뽀이 흠어진 나의 고양이들은 모두 더 좋은 주인을 찾아갔겠지요?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은 태국에 살 수 있어서 저는 꿈만 같아요. 만약 꿈이라면 절대 깨어나지 않았으면...

밤거리에서 여러분 옆을 우아하게 스쳐 지나가는 고양이가 저의 스물네 마리 고양이 중의 한 마리일지, 또 그들의 아기 고양이 일지도 모르겠군요. **장**



바른 말 고운 말

경신 / 갱신 한자어 중에는 같은 한자이면서도 그 쓰임에 따라서 한글 표기가 달라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경신(更新)'과 '갱신(更新)'도 그중 하나입니다. '경신'은 옛것을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흔히 종전의 기록을 갱다고 할 때 '갱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 경기나 육상 경기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이 나왔을 때 '기록을 갱신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갱신'은 문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의 기간이 다 돼서 새로 만들 때, 그리고 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 등이 만료돼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는 모두 '갱신'한다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신 주민등록증 신청 안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갱신 주민등록증 신청 안내'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 됩니다.

들르다 / 들리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과일 좀 사 왔니?"

이 문장에서 '들리다'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들르다'와 '들리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들리다'는 '들다'나 '들다'의 피동이나 사동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들리고, 들리지, 들러서' 등으로 활용됩니다. '노랫 소리가 들리다', 'OO에 가방을 들리다', '나쁜 병에 들리다', '몸이 번쩍 들리다' 등입니다.

반면에 '들르다'는 지나는 길에 잠깐 거친다는 뜻으로 '들르고, 들르지, 들러서'와 같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들리다'나 '들르다'를 모두 '들리다'로 사용해서 이제는 '들르다'라는 말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의 문장을 바르게 고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과일 좀 사 왔니?"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오른쪽 방향 열쇠

1. 겉은 빨강고 속은 흰 과일.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죠
3. 음력 8월 15일 추석을 이르는 우리 말
5.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는 일. 주로 설이나 추석, 한식에 한다
7. 겉은 녹색에 세로줄 무늬가 있는 여름 과일. 모양은 크고 둥글며 무게는 5~6kg까지 나가며 속살은 붉고 달다
8. 꽃을 심어 가꾸는 그릇
9.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중의 보건·휴양·놀이 등을 위해 마련한 정원, 유원지, 동산 등의 사회 시설
10. 한라산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
11. 나무로 만든 짝의 말을 한(漢)나라와 초(楚)나라로 나누어 판 위에 벌여 놓고 서로 번갈아 가며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
12. 인절미나 경단 곁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로 된 재료. 콩, 팥, 녹두, 참깨 등으로 만든다
13. 칼의 얇고 날카로운 부분. 이 부분으로 물건이나 고기 등을 벨 수 있다.
14. 중국 춘추 시대 노나라의 사상가.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논어' 7권이 있다
15. 살림하는 집
17. 나라를 대표해 다른 나라에 파견돼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해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18. 공기가 통하도록 낸 구멍
19. 환자나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구의 하나. 네모난 거적이나 천 등의 양면에 막대기를 달아 앞뒤에서 맞닿게 되어 있다
20. 꼭지에 달린 꽃이나 열매 등을 세는 단위
21. 열렬하게 바람
22.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지물전 혹은 지전이라고도 하죠

▶ 아래쪽 방향 열쇠

2. 과실나무를 심은 밭. 흔히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가꾼다
4. 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에 속하는 섬. 압록강 하류에 있으며 이성계가 명나라를 치러 가던 군대를 돌린 곳으로 유명하다
6. 산소를 지키며 보살피는 사람
10. 제사에 쓰는 음식물. 제수(祭需)라고도 한다
11. 장날이 서는 날. 보통 덧새 만에 선다
12. 무술 등의 단수가 높은 사람
13. 남을 해치려고 칼을 함부로 내저음. 또는 그런 일
14. 공적·사적인 일로 매우 바쁨
15. 살구나무, 개살구나무 등의 열매. 살은 먹고 씨의 알맹이는 한약재로 쓴다
16. 이사한 후에 이웃과 친지를 불러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일
18. 통이 넓은 바지

▶ 2017년 12월호 정답

고	고	릴	라	짚	
배	추	사	이	순	신
송	장	리	온		머
사	고			마	루
사	문	학	내	림	국
전	화		은	간	장
	분	장	행	운	국
아	거	울	수	찬	밥
침	리			우	물

임금님 수라상에 올린 명품 ‘이천쌀밥 정식’

차지고 윤기 자르르... 고슬고슬한 밥맛에 풍성한 반찬



이천 쌀밥정식 상차림(3인분). 돌솥밥을 비롯해 청국장 찌개, 간장계장, 떡갈비, 잡채, 녹두전, 삼색나물 등 반찬이 풍성하게 놓여있다.

한민족에게 쌀은 식량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민족의 정체성이자 혼이었다. 가난과 식민의 시대에는 한과 꿈을 품은 식량 자원이었다. 청동기시대부터 쌀농사를 지었고, 삼국시대 이후 쌀은 주식으로 탄탄히 자리 잡았다. ‘쌀’이라는 말과 ‘밥’이라는 말이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통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남과 북이 오래도록 분단된 상태이건만 쌀과 밥이라는 말과 정서에선 여전히 같다. ‘밥’이라고 하면 ‘쌀밥’을 먼저 떠올릴 만큼 단 한 음절인 ‘쌀’과 ‘밥’은 우리 민족으로 고귀한 생명이자 끈끈한

공감대다. 식사를 하더라도 ‘밥을 먹는다’고 한다. 그 정도로 밥이 식단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경기도 이천은 예부터 대표적인 쌀과 밥의 고장이었다. 벼의 생육에 알맞은 땅과 물, 그리고 기후를 두루 갖추고 있어서다. 토양의 경우 찰흙과 모래가 적절히 섞여 양분 흡수가 잘 되고, 수질 또한 맑고 깨끗한 데다 밥맛을 좋게 하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다. 분지형이어서 특히 결실기인 가을에 일조량이 풍부한 데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서 벼의 생육 여건으로는 그만이다. ‘이천(利川)’이라는 지명 자체가 ‘삶에 이로



1



2



3

운 물이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예부터 부자 농부가 많은 풍요의 땅이었음은 당연지사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 힘입어 이천 쌀은 일찍이 조정의 진상미로 자리를 굳혔다. 옛 문헌에 따르면, 여주의 세종 영릉에 성묘하고 환궁하던 성종은 이천에서 밥맛에 깊이 매료됐다. 미식이었던 성종은 입맛과 기운을 돋우는 이천의 '자채쌀'에 흠뻑 빠져 일품의 이천 쌀을 수라상에 올리도록 명했다. 자채쌀은 이천 한가운대를 가로질러 흐르는 복하천 주변에서 생산되는 극조생 품종이다. 이 쌀밥 음식이 지금도 수라상처럼 풍성하게 차려져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천시에는 사음동과 신둔면, 백사면을 중심으로 20여 곳의 쌀밥집이 성업 중이다. 음식 명칭과 종류, 맛 등에서 식당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르르 윤기가 흐르는 쌀밥 맛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벼는 수확 20일 후에 정미해야 쌀의 탄력과 윤기를 한껏 살릴 수 있다. 쌀을 불리는 시간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햅쌀은 아직 건조된 상태가 아니어서 1시간 정도만 불리면 되나 여름에는 2시간여 동안, 겨울에는 4시간가량 물에 불린 다음 잘 씻어서 밥을 지었을 때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쌀밥이 더욱 맛있을 수 있는 이유는 찌개, 나물, 생선구이 등 푸짐한 반찬이 있어서다. 매운맛,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등 오감을 만족하게 하는 각종 음식이다. 청국장찌개의 경우 직접 띄운 메주콩을 푹배기에 담아 보글보글 끓여 내는데 제 고장에서 생산된 순수 토종 콩만을 사용한다. 정성으로 만든 이들 음식은 품격 있는 도자기 그릇에 단아하게 담겨 먹는 기쁨을 더욱 높여준다. 쌀밥 정식은 반찬 등 상차림에 따라 1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다양해 취향과 형편대로 골라 먹을 수 있다. [\[참\]](#)

1. 조개젓과 함께 숟가락에 담긴 새하얀 쌀밥.
2~3. 햅쌀로 쌀밥 짓기. 솥에 쌀을 안쳐 불을 켜면 15분 후 차지면서도 윤기 흐르는 밥이 탄생한다.

이천시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제1코스: 설봉공원(도자기축제장) → 사기막골 도예촌(사음동) → 이천쌀밥(점심) → 산수유마을(육과정) → 들꽃야화원(압화악세서리 만들기) → 반룡송(백사면)

제2코스: 설봉공원 → 쌀밥, 한우 사음동 → 작은사랑농원(딸기따기 체험) → 돼지박물관(미니돼지쇼 관람) → 노성산 말머리바위(실성면 수산리) → 반룡송 백사면

대중교통

시외버스: 동서울 버스터미널-이천 시외버스터미널 (소요시간 1시간 20분)

고속버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천 종합터미널 (소요시간 1시간)

전철: 판교역-이천역(경강선) 소요시간 33분

식당정보 임금님쌀밥집(031-632-3646)

쌀문화축제

대표적 쌀문화의 본향에 걸맞게 해마다 가을이면 이천의 설봉공원 일원에서 이천쌀문화축제가 열려 이천 쌀문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그 맛을 즐길 수 있게 한다. 19회째를 맞은 지난해 축제는 10월 18~22일 '오! 행복한 밥상~ 쌀 맛 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천쌀문화축제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중 최우수축제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쌀밥을 먹은 뒤 이천의 명소를 둘러보면 그 즐거움이 배가될 수 있다. 쌀문화축제의 개최장소인 설봉공원에 가면 설봉호를 돌며 주변 풍광을 찬찬히 감상할 수 있다. 뒤편 설봉산(393m)에 올라 삼형제바위와 설봉산성 등을 만나봐도 좋다.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이기도 한 만큼 사음동과 신둔면 일대의 도예촌을 방문하는 것 또한 추천할 만하다.



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12월 20일 사할린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에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우성 이사장과 재단 직원들은 이날 위문품 전달과 함께 고향마을 시설을 둘러보고, 사할린 동포들을 만나 고충도 들었다.

한 이사장은 “사할린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모국으로 돌아온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국생활 지원과 사할린에 남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자식이나 손주가 사할린에 남아 있어 연말이면 부쩍 외로움이 커지는데 잊지 않고 찾아와 격려해주니 힘이 난다”고 한 목소리로 고마워했다.

재단은 고향마을을 포함해 전국 29개소에 거주하는 2천900여 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게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3천 세트의 위문품을 보냈다.

거동이 불편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동포에게는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

재단은 1998년부터 매년 연말에 쌀 또는 생필품 등의 위문품을 영주귀국 동포에게 전달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고항마을에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고충을 청취했다.

동포재단 국민인식 조사... 절반 이상 “한민족 동질감 느껴”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외동포 거주 지역을 북미(58.4%), 중국(18.9%), 일본(11%), 유럽(5.4%)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재단은 (주)지알아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내 성인남녀 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보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

는가’라는 물음에 62.6%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한국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긍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왔다.

재외동포가 한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은 46%에 달했고 분야별로는 ‘독립운동’(59.0%), ‘대한민국 위상 변화’(40.7%),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41.3%),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43.5%) 등에 기여했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동포로는 북미(45%), 중국(35.5%), 일본(11.7%) 3개 지역 동포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 역할로는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 여론 조성’(43.2%), ‘경제적 협력 포함한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25.9%), ‘남북관계 중재자’(19.8%), ‘북한 주민 의식변화 촉진’(11.2%) 순으로 답변했다.

중국동포 교사들, 공주대서 2주간 교육역량 강화 연수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중국동포(조선족) 교사 62명이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연수과정을 밟는다.

중국 지린·랴오닝·헤이룽장 성의 조선족

유치원·초등학교의 조선어 교사 40명, 음악 교사 22명이 방한해 한국어 교수법, 상담기법, 국악 활용 교육 등에 대해 배우고 공주대 부설 유치원·초등학교 수업에 참관한다.

이들은 국립 한글박물관 견학, 역사 유적지 탐방,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등에도 참가해 한민족 정체성을 키운다.

연수 기간 학교 운영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등 학교 발전을 위한 노하우 공유 활동도 벌인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조선족 공동화 현상이 일고 있는 동북 3성에서 민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선족 학교 역량 강화를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중국동포(조선족) 교사 62명이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에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도시 | 평창, 정선, 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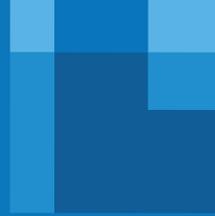
2018년 2월 그 순간,
당신은 누구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알파인 스키 Alpine Skiing



바이애슬론 Biath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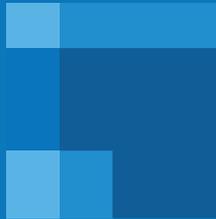
봅슬레이 Bobsleigh



크로스컨트리 스키 Cross-Country Skiing



프리스타일 스키 Freestyle Skiing



노르딕 복합 Nordic Combined



스키점프 Ski Jumping



스노보드 Snowboard



봅슬레이 Bobsleigh



루지 Luge



스켈레톤 Skele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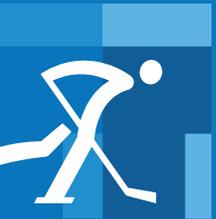
컬링 Curling



컬링 Curling



피겨 스케이팅 Figure Skating



아이스 하키 Ice Hockey



쇼트트랙 Short Track Speed Skating



스피드 스케이팅 Speed Skating

입장권 선착순 판매 www.PyeongChang2018.com

※ 1인당 총 주문 한도는 50매이며, 1개 경기 주문한도는 인기 경기(4매)*, 그외 경기(8매)

*인기경기 : 개회식, 폐회식, 피겨스케이팅(전 경기), 쇼트트랙(전 경기), 스키점프(결승),
아이스하키(남자-4강부터 결승까지, 여자-결승), 스피드 스케이팅(10000 m 제외한 전 경기)



입장권 QR코드

원클릭 서비스(입장+교통+숙박) 안내 www.pyeongchang.kaltour.com

고객센터 : 1544-4226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